

불자 세상보기



고영섭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책은 지식의 창고다. 지혜의 심장이다. 책은 나의 마음을 지켜준다. 나를 비춰보는 내면의 거울이다. 좋은 책은 나의 인생을 바꿔 준다. 좋은 고전은 나를 깊게 하고 나를 넓게 한다. 책읽기로 우리의 삶을 확장할 수 있다. 사람노릇을 제대로 하려면 책을 읽어야 한다. 밤잠을 하려면 책을 읽어야 한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면 책을 읽어야 한다. 책의 지식을 습득하여 삶의 지혜로 살아가야 한다.

책읽기는 나의 내면을 집중하게 해준다. 집중은 몸과 마음을 모으는 효과가 있다. 선사의 깨침도 몰입과 집중에서 나온다. 몰입과 집중은 수행의 다른 이름이다. 2016년 벽두에 뉴욕타임스는 미국 의학도서관 연구소가 실시한 인간의 집중력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인간은 8초, 금붕어는 9초란다. '금붕어보다 못한 인간의 집중력!' 이 연구소가 실시한 2000년 조

사에서는 인간의 집중력이 12초였다. 이 연구소는 인간의 해독제로 '깊은 독서'를 제시하였다.

예로부터 사람은 태어나서 '다섯 수레의 책을 읽어야 한다'고 했다. 대략 50권이 든 20박스를 한 수레로 쳐 보자. 그러면 아마도 오전 권은 될 것이다. '대장부로 태어나서 어찌 오전 권을 읽지 못하랴' 우리는 이렇게 화답해야 할 때다. 안중근 의사는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는다"고 했다. 이 말로 패러디 해 세태를 꼬집어보면 "하루라도 스마트폰을 만지지 않으면 손에 티눈이 생긴다"고 해야겠다. 우리 국민의 스마트폰 중독이 심상치 않다.

지난 22일에 우리나라 문화체육관광부가 2014년 10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전국의 19세 이상 남녀 5천명과 초·중·고교생 3천명을 대상으로 벌인 '2015년 국민 독서 실태 조사'를 발표하였다. 여기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연평균 독서율(독서인구)은 65.3%라고 한다. 이 통계는 문화부가 1994년에 국민 독서 실태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성인 10명 중 4명 가까이는 단 한 권도 읽지 않았

는 것을 의미한다.

대개 연평균 독서율은 1년간 종이책을 1권 이상 읽은 사람의 비율이다. 이것은 잡지, 만화, 교과서, 참고서, 수험서 제외한 것이다. 지난해 학생들의 연평균 독서율도 94.9%로 1.1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 우리나라 성인의 연평균 독서량은 9.1권으로 2013년보다 0.1권이 줄었다. 초등학생이 70.3권, 중학생이 19.4권, 고등학생이 8.9권임과 비교해 보면 너무 적다.

독서시간은 성인은 평일이 22.8분, 주말이 25.3분으로 2015년보다 각각 0.7분, 0.5분씩 줄어들었다. 초등학생이 54.7시간, 중학생이 45.8시간, 고등학생이 34.4시간에 견주어보면 너무 적다. 전체 성인들의 64.9%, 학생들의 51.9%가 '스스로 독서량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책을 읽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독서자 기준 평균 독서량'은 연 14권으로 12.9권이던 2013년보다 1권 이상 늘었다. 독서 인구는 줄어들었지만, 책을 읽는 사람들이 읽어내는 양은 늘어난 것이다.

책을 충분히 읽지 못하는 이유는 '일이나 공부 탓에 시간이 없어서'라

는 대답(34.6%)이 많았다. 또 '책 읽기가 싫고 습관이 들지 않아서'가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스마트폰 할 시간이 없어서라는 말은 하지 않는다. 성인이나 학생이나 스마트폰 폰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통계 내어 보면 적어도 1시간 이상은 넘을 것이다. 개인과 단체 카톡방, 문자메시지, 이메일 작성, 각종 뉴스, 스포츠, 연예, 쇼핑, 라이프, 남녀공학, 편·웹툰, 댓글 등등을 보는 시간까지 치면 더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 버스나 지하철에서 책 읽는 이들을 찾아보기 어렵다. 모두가 스마트폰 삼매경에 들어있다. 물론 스마트폰 속에도 무궁무진한 정보가 들어있다. 하지만 그것이 자기 것으로 되기 위해서는 좀 더 느리고 보다 더디게 다가가야 한다. 속도에 붙들리지 않고 속도를 끌고 와야 한다. 시간과 속도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주위가 고요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고요속에서 자신을 성찰해야 한다. 책은 나를 집중하게 하고 책읽기는 나를 성찰하게 한다. 그러니 어찌 책을 읽지 않을 수 있겠는가? 책을 읽지 않는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

社說

세계적 선지식과 함께 할 행복찾기

선불교를 표방하는 선종은 개인적 깨달음을 중시한다. 선 수행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참선이 주로 이용된다. 가만히 앉아 화두를 붙잡고 몰입하거나, 번뇌와 잡념을 없애는 일종의 마음공부다. 이것이 요즘 흔히 말하는 명상이다. 그 가치는 이미 입증됐다. 스티브 잡스가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명상에 빠진 일은 유명하다. 빌 게이츠도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명상을 한다.

공정심리학에선 명상을 행복추구활동으로 본다. '몰입(flow)' 전문가인 심리학자 칙센트미하이이는 "어떤 일에 집중해 다른 생각 없이 몰입할 때 문득 행복해지는 순간이 온다"고 강조한다. 최근에는 템플스테이가 인기를 끌고 '힐링(치유)'이 시대의 코드가 되면서 명상인구는 더 많이 늘었다. 다만 명상이 개인적인 수양을 중요시하는 만큼 대중화하기에는 한계가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었다.

그런데 이런 한계를 뛰어넘는 일종의 명상올림픽이 2월 정선서 열린다. 세계적인 불교 명상가들이 명상을 지도하는 '세계명상대전'이 그것이다. 2월 25~28일 강원도 정선 하이원리조트에서 열리는 이 행사는 현대인의 심적 트라우마 치유를 통한 행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명상대전에는 태국의 영적 스승으로 추앙받고 있는 아잔 간하, 동양의 참선을 서양으로 전파한 아잔 브람(오스트레일리아), 한국 불교의 대표적 간화선 수행자인 혜곡 스님, 대만의 선승 심도 스님 등이 함께한다.

수천명이 한 군데 모여 명상을 한다는 점에서 아이러니도 느껴지지만, 예전 같은 수만리 길을 찾아가도 만나기 어려울 고승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것이니 가슴 벅찬 이벤트이다. 세계적 명상 멘토들이 이 시대 한국 사회에 던질 화두는 과연 무엇일지 궁금하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61주년에 부쳐

지난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해였다. 당시 한국 사회는 광복 이후 근현대사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는 여러 시도들이 있었다. 불교계 역시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잊고 있던 단체가 있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였다. 1955년 전국신도회 출범한 중앙신도회는 현재까지 불교계를 대표하는 신도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최근에는 '행복바라미'를 통해 기부문화에 앞장서고 있고, 조계종 24개 교구본사 신도회를 조직하면서 역량 강화에도 나서고 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1월 26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창립 61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지난해 발생한 메르스 사태로 취소됐던 기념식을 다시 개최한 것이다.

60년, 사람이라는 환갑을 넘은 나이다. 다른 말로는 '이순(耳順)'이다. 이순은 '눈어' '위정관'에 나오는 '예순에는 남의 말을 듣기만 하면 곧 그 이치를 깨달아 이해하게 되었다(六十而耳順)'는 공자의 술회에서 비롯된 말이다.

듣기만 해도 이치를 깨닫는 나이에 접어든 중앙신도회는 앞으로도 불법홍포·불교진흥·종생구제의 길을 걸어야 한다. 수행으로서 내 삶을 밝히고, 보살행으로 사회를 더욱 향기롭게 해나갈 때 불국도는 성류 우리 곁에 다가와 있을 것이다.

기자수첩

연예 시상식 종교 발언은 '전파 낭비'



박아름 취재부 기자

지난해 연말 방송 시상식에도 어김없이 예수님과 하나님에 등장했다. 15명 연예인이 무대에 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는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란 수상 소감을 남겼다. 너도 나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탓에 도리어 하나님에 격정될 정도다.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만당)가 1월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방송 시상식에서(KBS 6명, MBC 2명, SBS 7명) 총 15명이 수상소감으로 종교적 신념을 표출했다.

그러나 1명이든 100명이든 그들의 종교적 신념 발언은 전파를 타고 '다종교 사회'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퍼져나간다. 편안한 연말 저녁을 향유하던 시청자들은 굳이 알고 싶지 않았던 것에 기습적으로 공격당하며 눈살을 찌푸린다. 이런 점에서

'여고 앞 바버리맨의 기습공격'이라 표현해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

방송에서 종교적 발언은 '배려와 존중'이란 관점에서 문제가 된다. 술한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무언가 문제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논리에는 불특정 다수 시청자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결핍돼 있다. 그들은 '불특정 다수 시청자' 범주에 개인교뿐만 아니라 불교, 가톨릭, 이슬람교, 힌두교 등 수많은 종교인들이 포함돼 있던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다. 또한 그들 중 대다수가 안방에서 '하나님'이란 단어를 들길 원치 않는 것도 또한 너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예인들의 종교적 신념 발언은 일부 종교의 특성에서 비롯된다. 바로 '선교'다. 선교를 위해선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가치를 어필(appeal)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종교 신념을 가진 연예인들은 그들에게 부여된 '방송 출연권'으로 국민 기본권, 즉

종교의 자유를 침범하는 일을 자행하고 있다.

MC이자 개그맨인 신동엽 씨는 2014년 MBC 연기대상 진행 중 한 연예인이 종교적 발언을 하자 이례적인 반응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바로 "우리나라엔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신자도 참 많다. 하지만 불교신자들 중에선 한 명도 부처님께 감사하던 말을 한 사람이 없다."는 발언이다. 신 씨의 발언은 시상식 직후 '신동엽 소신발언'이란 수식어로 큰 화제가 됐다.

주목할 점은 여론이 이를 '소신발언'이라 평가한 것이다. 수십 년간 수천만 명의 시청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는 발언에 맥없이 노출돼 왔다. 그러나 특정 종교를 믿는 소수 연예인들은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시청자들은 전면(面前)이 아닌 브라운관 앞에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으니 그럴 만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무방비로 노출됐던 타종교 신자, 무종교인들에게 신 씨의 발언이 그야말로 속 시원한 '사이다'가 아니었을까?

무(無)배려와 무(無)존중은 '갈등'을 야기한다. 너무나 당연한 논리다. "내 입으로 내 신념을 얘기한다"는 주장은 "내 귀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겠다"는 반론을 낳는다. 이러한 갈등은 결국 특정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아닌 사람들 사이에 선을 만들고, 종교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촉발할 수 있다.

하나님만 찾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개인의 신념을 두고 옳다 그르다 알기 못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만약 부처님, 알라신 등 다른 종교를 믿는 이들이 '방송'이란 일종의 공공물을 통해 종교적 신념을 표출한다면 이 역시 지탄의 대상이 돼야한다. 방송인은 '공인이나, 아니냐'로 시비가 갈릴 만큼 한국사회에서 정치인 못지않은 영향력을 미친다. 이러한 방송인이 종교와 같은 개인적 신념이 아닌 사랑·배려·가족 등 인류보편의 가치에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면, 가족이나 여러 갈등이 산재한 한국사회에 평화의 씨앗 하나 심을 수 있지 않을까? 화두를 던져본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서혜원 편집인: 박혜열 인쇄인: 배성환
(우)03150 서울특별시 중구 우정국로 45-1, 2층(수송동) 대표전화(02)2004-8200/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www.hyunbul.com
www.hyunbulnews.com
www.hyunbulshop.com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영 주 지 국 : (054)634-342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환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는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천광수련원 ☎ 043) 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요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생전에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 생전에수재는 “왜” 팔히 지내야만 하는가?
● 생전에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 생전에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